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스팟 리포르타주

취재 및 사진, 글 : 최성윤 (트렌드 리서처)



‘도시공간과 디자인의 미래’

(세계적인 공공&도시 디자이너 루디 보 세미나)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공공, 도시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루디 보(Ruedi Baur)의 세미나가 5월 13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의 대표적인 공공 디자인의 사례와 그의 디자인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새로운 Visual Language – 풍피두 센터’

루디 보(Ruedi Baur)의 대표적인 공공 디자인프로젝트인 풍피두 센터는 서로 각기 다른 색깔, 언어, 정보를 Mixed 해서 완성된 작품으로 글이나 숫자, 이미지를 넣어 새로운 시도로 탄생시킨 공공디자인 작품이다. 풍피두 센터내의 영화관 박물관등을 나타내는 panel에 들어가는 font나 글들이 각각 다르게 연출되었다.



사진 2> 풍피두 센터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는 루디 보(좌) / 풍피두 센터(우)
사진촬영/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Köln Bonn Airport – 공항은 한 국가의 출입을 위한 입구’

대부분의 국제 공항들이 주요칼라로 사용하고 있는 블루 칼라에서 탈피한 새로운 칼라와 감각으로 디자인하였다. 알파벳을 쪼개 후 곡선과 직선 요소를 재 조합한 새로운 Typo(font)와 pictogram을 사용해 시각적 요소를 살려 접목한 새로운 Typography의 Visual language로 탄생된 공항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350개의 Visual language(graphic sign)을 사용하여 logo type은 때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다양한 Story까지 만들 수 있는 Sign System 기법을 통해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시도하였다. 또한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 응용하더라도 쉼 본 공항의 *Signographic임을 알 수 있다.

*Signographic이란?

빌딩이나 지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기능을 설명해주는데 단순히 기능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성적(emotional)이기도 한 디자인으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어린이들은 Signographic과 같은 Visual language(시각적 언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사진 3> 쉼 본 공항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Signographic
사진촬영 /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새로운 Lighting 효과를 이용한 디자인 - ‘Quartier des spectacles’, Montreal

루디 보(Ruedi Baur)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엿보이는 새로운 작품으로 야간에만 볼 수 있는 라이팅(lightning)을 응용한 컨셉으로 불이켜진 도시의 건물 안에서는 무슨 일인가 진행되고 있으나 불 꺼진 건물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한 디자인. 건물 주변을 다양한 lighting 효과를 사용하여 디자인, 새로운 나이트로지 문화(nightlogy culture)를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빛을 통한 identity는 건물에 국한되며 도시의 identity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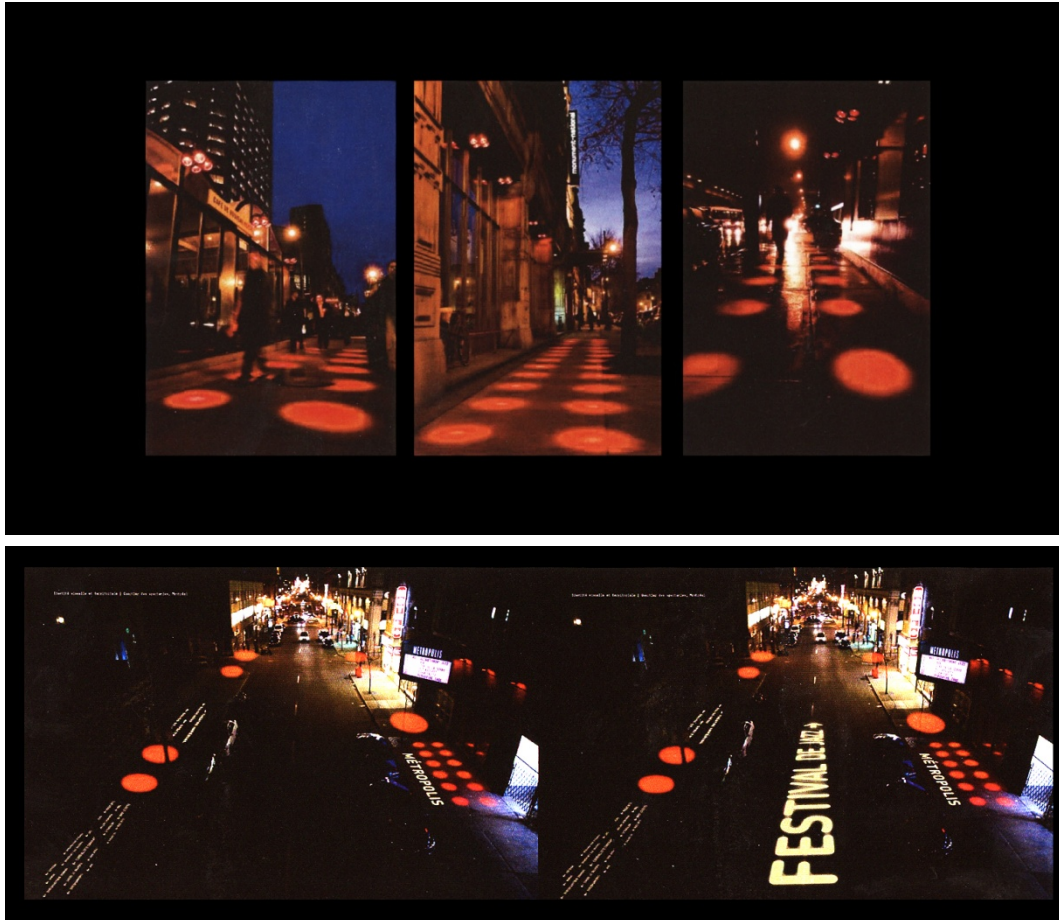


사진 4> 라이팅 효과를 이용한 작품 ‘Quartier des spectacles’, Montreal

‘건물이나 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새로운 디자인’

그는 “공공디자인 작업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모든 공공 디자인이나 도시 디자인을 할 때는 단지 아름답게 꾸미거나 디자인하는 것보다 다른 도시와 다른 공공건물과의 차이점이나 특성을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파악하고 디자인해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을 진행함에 있어 특정 도시만의 깊이 있는 특징을 나타내야 하며 단지 아름다움의 추구보다는 건물이나 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새로운 디자인이다” 라고 말하며 도시의 아이덴티티 작업에 있어 그래픽 디자이너로써 오페라, 영화, 공원과 같은 도시의 풍부한 요소와 장점을 파악하여 패키지로 묶어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도시의 모든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많은 장점을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 나의 디자인 표현방식”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돌고 도는 copy된 디자인은 19세기 식의 지나간 디자인이며 21세기의 디자인을 위해 새로운 것을 찾아 발로 뛰는 디자이너가 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새로운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사진 5> 강연중인 루디 보(Ruedi Baur)
사진촬영/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세미나 후기>

부드러운 외모와는 다르게 강연에서 그의 작품과 디자인 철학을 얘기할 때는 세계적 스타 디자이너다운 포스가 느껴졌다. 매번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많은 자료 조사와 각 도시나 건물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영감들을 새로운 표현방식을 디자인으로 나타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세계적인 그의 디자인프로젝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디자인 보다 각각의 디자인 속에 녹아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디자인이 더 크게 느껴진다.